

東學 敎祖 水雲 崔濟愚의 敎人之法*

안 경 식*

부산대학교

〈요 약〉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통사회에서 종교가 수행하던 교육적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사상은 교육사상으로, 종교의 창시자나 지도자는 교육적 인간상으로, 인류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교육내용과 방법의 원천이자 모범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동학 교조 수운 최제우의 교인지법을 탐구한 논문으로 서론을 제외하고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 수운의 교인지법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수학과 수도 경력을 살펴보았다. 교육의 입장에서 득도 이전의 수운의 삶은 모두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가 부친의 삼년상을 마친 1842년까지의 유학교육기, 둘째 단계가 장사로 나서기 전까지 각종 술법서와 무술을 익히던 2년간의 시기, 셋째가 1844년 장사에 나서 눈으로 세상 상황을 파악하던 시기, 넷째 단계가 1854년 장사에서 돌아와 울산 여시바위골에서 수도를 시작하여 1859년 용담으로 다시 돌아와 수도를 계속하던 시기이다. 제Ⅲ장에서는 수운의 교인지법을 1) 의례의 측면, 2) 수도의 측면, 3) 포덕의 측면 등 3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수운의 교인지법이 지니는 교육방법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핵심 주제어 : 동학, 최제우, 수운 최제우의 교육방법, 교인지법

* 이 논문은 2007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론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사회에서 종교가 수행하던 교육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종교사상은 교육사상으로, 종교의 창시자나 지도자는 교육적 인간상으로, 인류의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들의 가르침은 교육내용과 방법의 원천이자 모범이 되어왔다. 그들은 수행을 통하여 절대적인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사회적으로 ‘환원’함으로써 교육사상가가 되었고, 교육실천가가 되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시대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지만 시대에 얽매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교육학의 입장에서조차 그들 종교창시자의 사상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전자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비롯하여 새로운 교육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창시자들의 교육방법은 그다지 새롭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창시자들 자체가 깨달음을 얻은 자이며, 깨달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편 교육자이기 때문에 가르침의 내용뿐 아니라 가르침의 방법 역시 시대성과 초시대성을 함께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종교창시자들의 교육방법을 재조명 해보는 것은 새로운 방법만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육계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운 최제우(1824~1864)는 조선 말기, 동학을 창도한 사람이다. 동학은 그 명칭에서부터 ‘학’(東學)이고, ‘도’(天道)라고 하여 동양사상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며, 사상 역시 유·불·선의 전통을 일정 부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수운의 사상은 기존 사상의 현실적 한계를 타파하는 새로운 면도 아울러 제시함으로써 당시 민중들의 삶과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민중들의 삶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영향은 ‘교육적 영향’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그는 이미 교육학계에서 인정하는 교육사상가로 자리 잡고 있다.¹⁾ 이에 비해 교육자로서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어 왔다. 좌도난정(左道亂正)의 죄목으로 수운을 체포, 심문하여 올린 경상감사의 장계(狀啓)에 따르면 수운은 동학 창도 이전에 “훈학을 업으로 삼았다(訓學爲業)”고 적고 있다. 그리고 득도 후에도 아동들에게 글과 글씨를 가르치는 훈학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²⁾ 그러나 이것으로서 수운을 교육자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다. 따지고 보면 득도 이전 기미년(1859년)에 고향 용담으로 돌아와 세상을 구하고 중생을 구하겠다는 심경으로 제선(濟宣)에서 제우(濟愚)로 개명을 한 것도 교육자로서의 결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자로서의 참다운 모습은 1860년 득도로부터 시작된다. 수운이 종교창시자가 된 것은 그의 종교경험에 기인하며, 이 득도 당시 그는 사람을 가르치고[敎人], 사람을 구제하는[濟人] 임무를 동학의 절대자인 ‘한울’로부터 부여받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가르침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교인지법(敎人之法)’이다. 이들 교인지법 가운데 어떤 것은 한울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편, 『한국교육사상가평전 1』 (서울: 교학연구사, 1987), 193~208쪽 및 이원호 외, 『한국의 전통교육사상』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217~270쪽 등.

2) 표영삼, 『동학 1』 (서울: 통나무, 2004), 309~313쪽.

예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것도 있다. 그의 득도 경험은 그의 교인지법의 근원적 바탕이 되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의 삶의 경험, 특히 그의 수학과 수도의 이력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제Ⅱ장에서 수운의 교인지법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수학과 수도 경력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수운의 교인지법을 1) 의례의 측면, 2) 수도의 측면, 3) 포덕의 측면 등 3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제Ⅳ장에서는 수운의 교인지법이 지니는 의의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Ⅱ. 득도 이전 수운의 수학과 수도 경력

인간은 교육적 존재이다. 대부분의 종교 창시자가 나름대로의 ‘특별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자신들만’의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들은 시대와 ‘함께’ 살아갔기에 그들의 삶도 ‘사회적’인 것이다. 그들의 삶은 깨달음을 얻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르지만 그 전후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깨달음을 얻은 후의 교육실천과 교육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기 전의 삶을 수학과 수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김용옥은 수운의 일생을 4단계로 나눈 바 있다.³⁾ 첫 단계가 태어나서 19세 울산 박씨와 결혼 때까지이고, 둘째 단계는 결혼 후부터 31세 때까지 장사꾼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방랑하던 시기이고, 셋째 단계는 방랑을 끝내고 용담으로 돌아온 후, 울산 여시바윗골로 갔다가 다시 용담으로 돌아와서 득도의 체험을 하기까지이며, 넷째 단계는 득도의 체험에서 순도의 순간까지로 보았다. 그러나 수운의 교인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운의 삶을 교육의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몽중노소문답가>에는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들애기 탄생하니 기남자 아닐런가
 얼굴을 관옥이오 풍채는 두목지라
 그럭저럭 지내나니 오류세 되었더라
 팔세에 입학하여 허다한 만권시서
 무불통지 하여내니 생이지지 방불하다
 십세를 지내나니 총명은 사광이오
 재국은 비범하고 재기과인하니
 평생에 하는 근심 효박한 이 세상에
 군불군 신불신과 부불부 자부자를
 주소간 탄식하니 울울한 그 회포는
 흉중에 가득하되 아는 사람 전혀 없어
 처자 산업 다버리고 팔도강산 다 밟아서

3) 김용옥, 『도올심득 동경대전 1』 (서울: 통나무, 2004), 162쪽.

인심풍속 살펴보니 무가내라 할길 없네

(…)

아사서라 아사서라 팔도구경 다던지고

고향에나 돌아가서 백가시서 외워보세

즉 자신은 8세에 입학하여 만권시서를 다 읽었으며 무불통지였다는 것이다. 이때 ‘입학’이 서당과 같은 교육기관에 입학한 것인지 공부를 시작하였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유학자로서 영남 유학의 전통을 잇고 있었던 부친인 근암공 최옥의 영향을 받아 청년기까지 많은 책을 읽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동학의 초기 역사를 담고 있는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이하 『도원기서』로 줄임)에 의하면 “4, 5세가 되니 용모가 기이하고 총명함이 사공과 같아 산림공(근암공)이 늘 사랑하고 보살피기를 기이한 재화와 같이하였다.(四五歲, 容貌奇異, 聰明司曠, 山林公居常愛育視同奇貨)”고 하였다.⁴⁾ 수운은 근암공이 63세에 처음으로 본 귀한 아들이었으니 그 애지중지함은 말할 것도 없었고, 수운의 교육에 끼친 그의 부친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할 수 있다. 근암공은 가훈 11조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15세 이전에는 글공부를 시켜 인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아야지 마소를 키우거나 논에 물대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⁵⁾ 결론적으로 근암공 생존 시에는 유학 공부를 적지 않게 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것은 그가 남긴 글을 보면 곳곳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교인지법에도 상당 부분 반영된다. 그러나 16세가 되어 그의 부친이 죽고 3년상을 치른 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이때 상황이 『도원기서』에 기록되어 있다.

삼년상을 치루고 나서 가산도 점차 쇠하고 글공부도 이루지 못하였고 청운의 뜻도 끊어졌다. 평생의 뜻한 바가 활달하고 국량이 커서 사람들을 일깨우는 것을 중시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이치의 술법을 연구하였으나 이는 밝은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잘 못 이끄는 이치가 분명한지라 일소에 버리고 돌이켜 무예를 닦았다. 2년쯤 되어서 활을 거두고 장사로 세상을 주유하게 되었다.(居憂三年, 家產漸衰, 學書不成, 意墮青雲, 然平生所志, 濶達大度, 有教人爲上之心, 而察其各理之凡術, 則必是明世誤人之理, 故一笑打棄, 又爲返武, 幾至二年, 藏弓歸商, 周遊八路)⁶⁾

위의 글에서 글공부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學書不成]은 유학 공부로서 벼슬길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어 여러 술법들에 대해 공부를 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말

4)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 한국학문헌연구소편, 『동학사상자료집 1』(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159쪽.(이 책은 이하 각주에서도 『도원기서』로만 표시함)

5) 표영삼, 앞의 책, 55~56쪽 참조.

6) 『도원기서』, 159~160쪽.

하는 술법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천도교창건사』에서는 유도와 불도의 운이 다했다 보고 기독교도 연구를 하고, 음양복술도 연구를 하였다고 하였다.⁷⁾ 물론 이러한 술법들도 바른 길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곧 포기하였으나 음양복술과 같은 공부는 뒷날 득도 후의 포교 수단이 되었던 부적과 주문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운의 학문 경력에 대해서 『동학사』에서는 “일찍 유도와 불도와 선도와 야소교이며 제자백가를 모도다 섭렵하여 보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바⁸⁾, 이런 폭넓은 공부의 시기는 단지 무예를 익히기 전으로 한정 지을 수 없고, 넓게 보아 근암공 사후부터 득도 이전까지의 시기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수운이 무예를 익혔다는 것은 그가 평소 존경하던 7대조 정무공(貞武公) 최진립(崔震立, 1568~1636)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우고 전사한 정무공에 대해 수운은 “선조의 충의는 절개가 용산(서원)에 남아 있고 우리 임금의 성덕은 해마다 임진년과 병자년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수덕문>에서 말하고 있다. 수운은 익힌 무예는 뒷날 <점가>(<점결>)의 형태로 포덕에 활용된다.

결혼 후 10년간의 장사는 세상물정을 공부하는 시기였다면 31세 되던 1854년부터는 장사를 그만두고 홀로 수도를 하며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즉 10년의 ‘주유팔로’를 통해 인심과 세상운수는 기존의 유도나 불도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서학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하여 스스로 수도와 사색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보려고 하였고, 고향에서 시작하여 울산 여시바윗골에서, 천성산 적멸굴에서, 다시 고향 용담에서 수도를 거듭하였다. 특히 다시 고향에 돌아온 1859년에는 자와 이름, 호를 모두 바꾸고 대단한 결심으로 수도를 하였다. 1860년 입춘을 맞아서 “도의 기운을 오래 간직하면 사특함이 들지 못하니 세간 사람과 같이 돌아가지 않으리(道氣長存邪不入, 世間衆人不同歸)”⁹⁾라는 시를 지어 자신의 결심을 나타내었다. 당시 수도의 내용과 방식은 자세히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때의 수도 경험이 뒷날 득도 후의 교육 방법과도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의 입장에서 득도 이전의 수운의 삶을 보면 모두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가 부친의 삼년상을 마친 1842년까지의 유학교육기, 둘째 단계가 장사로 나서기 전까지 각종 술법서와 무술을 익히던 2년간의 시기, 셋째가 1844년 장사에 나서 눈으로 세상 상황을 파악하던 시기, 넷째 단계가 1854년 장사에서 돌아와 울산 여시바윗골에서 수도를 시작하여 1859년 용담으로 다시 돌아와 수도를 계속하던 시기이다.

7) 『천도교창건사』, 한국학문헌연구소편, 『동학사상자료집 2』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36쪽.

8) 오지영, 『동학사』, 한국학문헌연구소편, 위의 책, 358쪽.

9)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경전』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포덕 122), 35쪽.

III. 수운의 교인지법

수운이 사람을 가르친 교인(敎人)의 목적은 여러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인 교인지법(敎人之法)도 그러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논의될 수 있다. 여기서는 수운의 교인지법을 의례와 포덕, 수행의 세 측면으로 구분해서 논의해본다. 의례는 상징적인 성격을 지니는 정형화된 행동으로, 그 정형성은 사람들의 행동에 권위적인 질서를 부여한다. 이러한 의례를 통하여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고,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므로 의례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 여기서는 포덕식, 입도식, 치제식, 제수식 등과 심고, 주문 등을 수운이 제정한 의례로 보고 이들에서 교인지법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포덕은 포교, 전도 행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려는 행위로서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직접적인 교육행위가 된다. 넓게 보면 의례 역시 포덕의 하나이며, 수행도 포덕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교육적 성격이 강한 강도회와 접을 통한 포덕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행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노력과 배우는 자의 노력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수운이 득도 당시부터 순도까지 일관되게 강조한 수심정기와 성·경·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의례의 관점에서 본 교인지법

수운의 교인지법을 논하기 앞서 수운의 교인지법의 근원과 수운의 교육자로서의 모습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운이 실제 대중을 상대로 포덕에 나선 것은 신유년(1861)에 이르러서이지만 가르침을 행하라는 것은 경신년(1860) 4월 5일, 한울로부터의 계시에 따른 것이다. 즉 수운의 ‘교육법(敎人之法)’의 근원은 한울에 있다. 득도 시, 수운은 몸이 떨리고 밖으로부터는 영(靈)을 접하는 기운[接靈之氣]이 있고, 안으로부터는 말씀을 내리는 가르침[降話之敎]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가르침이 바로 수운이 하늘로부터 받은 교인지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수운이) 여쭙되 “그러면 서도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리이까?” 하니 (한울이) 가로되 “아니다. 나에게 영부(靈符)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고, 그 형태는 태극이고, 또 궁궁이니 이 부적을 받아 사람들의 질병을 구하고,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 나를 위하게 되면 너도 길이 살고 덕도 천하에 펼 수 있다.”(曰然則西道以敎人乎, 曰不然, 吾有靈符, 其名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 受我呪文, 敎人爲我則, 汝亦長生, 布德天下矣)¹⁰⁾

그리고 득도 후 1년간은 “포덕할 마음을 두지 않고 지극한 생각으로 정성을 드리는(不意

10) 위의 책, <포덕문>, 3~4쪽.

布德之心, 極念致誠之端”¹¹⁾ 수도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날 무렵 수운의 득도 소식이 사방에 전해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 <도수사>에서는 이를 “불과 일년 지낸 후에/ 원처근처 어진 선비/ 풍우같이 모여드니/ 낙중우락 아닐런가”¹²⁾라고 표현했다. <수덕문>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을 열고 객을 맞으니 그 수효가 그럴듯하여 자리를 펴고 법을 베풀니 그 재미가 그러하였다. 어른들이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이 마치 삼천 제자의 반열 같고, 아이들이 절하고 읊하는 것이 육칠의 읊조림과 같다.(開門納客, 其數其然, 肆筵設法, 其味其如, 冠者進退, 悅若有三千之班, 童子拜拱, 依然有六七之詠)¹³⁾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운은 이제 스승, 교육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공문(孔門)의 교육상황에 비유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다시 <수덕문>에서는 “그럭저럭 미루어 신유년을 만나니 때는 6월이요 절기는 여름이었다. 좋은 친구들이 찾아오니 먼저 법을 정하고 어진 선비들이 나에게 물어오기도 하고 포덕을 권하기도 하였다.(然而彌留, 更逢辛酉, 時維六月, 序屬三夏, 良朋滿座, 先定其法, 賢士問我, 又勸布德)”¹⁴⁾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 주문과 입출교, 입도 의례 등의 수행법과 의례이다. 즉 신유년 무렵 입도(입교)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포덕식(布德式), 입도식(入道式), 치제식(致祭式), 제수식(祭需式) 등의 몇 가지 의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다. 동학의 의례는 이렇게 포덕 초기에 제정된 것으로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교육적 의미도 있다. 1883년 경주에서 간행된 계미판 『동경대전』의 끝부분에는 의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포덕식: 입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입자는 의관을 바로하고 예로써 전도한다.(人有願入者, 則先入者, 傳道之時, 正衣冠, 禮以授之事)

입도식: 입도할 때 동쪽을 향하거나 북쪽을 향해서 설위하고 정성을 다해 제례를 행한다. 분향하고 사배한 후 초입주문을 공경히 받도록 한다.(入道之時, 或向東, 或向北, 設位, 致誠行祀, 焚香四拜後, 以初入呪文, 敬以受之事)

치제식: 입도 후 치제의 절차는 설위하고 사배한 후 축문을 송독하고 바로 강령주문과 본주문을 송독한다.(入道後, 致祭節次, 設位, 四拜後, 讀祝, 而卽誦降靈呪, 及本呪文事)

제수식: 예주와 떡과 면, 어묵, 과일, 육포, 튀김, 채소를 차리고, 향과 초를 쓴다. 육종으로는 꿩고기는 늘 쓰이고 돼지고기도 간혹 쓰인다. 제수의 많고 적음은 힘써 행함(사정형편)에 따르도록 한다. 선생께서 포덕 초기에는 쇠고기나 염소고기, 돼지고기를 두루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해년(1863) 8월에 선생께서 나(해월)에게 도통을 전수하던 날, 이 도는

11) 위의 책, <수덕문>, 21쪽.

12) 위의 책, <도수사>, 90쪽.

13) 위의 책, <수덕문>, 22쪽.

14) 위의 책, <수덕문>, 21~22쪽.

유불선 삼도의 가르침을 아우르고 있으니 고기종류는 쓰지 말라 하였다.(設其醴酒餅麵, 魚物果種, 脯藿菜蔬, 香燭用之, 而以肉種論之, 雉則例用, 豬則或用, 祭需之多小, 隨其力行之也, 先生布德之初, 以牛羊豬肉, 通用矣, 至於癸亥八月, 先生顧予, 傳道之日, 此道兼儒佛僊, 三道之教, 故不用肉種事)¹⁵⁾

여기서 말하는 입도식과 치제식은 포덕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의식이며, 포덕식은 말 그대로 포덕이 되어 처음 도에 입도하는 사람을 위해 시행되는 의식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입도식은 입학생을 위한 입문의례이며, 포덕식은 입학자와 교육자를 위한 의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수식은 특별한 일, 예를 들어 천제(天祭)를 지내거나 도통을 전수할 때 행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⁶⁾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천제인데, 이것은 산제라고도 한다. 초하루와 보름에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 한울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때, 시문을 읊기도 하고 검무(劍舞)를 추기도 하였다. 박영학은 산제를 초기 동학의 주체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보내 보급하고 학습하던 공동 마당이자 공시망(公示網)의 하나로 보았으며¹⁷⁾, 윤석산은 이러한 포덕식, 입도식, 치제식, 제수식 등을 종교적인 의식을 통한 영성 개발 및 훈련의 과정으로 보았다.¹⁸⁾

그런데 위의 동학 의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주문이다. 위의 의례는 대부분 신유 포덕을 전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문은 영부와 함께 경신년 득도 때 한울로부터 받은 것이다. 즉 수운이 가장 먼저 가르침의 수단으로 받은 것은 부적과 주문이다. 먼저 부적을 만들었다. 그러나 수운은 부적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보았다. 효과가 있음을 체험하고,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해보았다. 그러나 효과가 일정치 않았다. 사람에 따라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 ‘성(誠)’과 ‘경(敬)’에 있었다. 한울님을 위해 정성을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인 사람은 늘 효과가 있었고, 한울의 도와 덕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도 효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중요한 깨달음이었다. 이후 ‘성’과 ‘경’은 ‘신’과 함께 동학의 중요한 수도의 원리가 된다. 주문에 대해서 수운은 <논학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 또한 거의 한 해를 닦고 헤아리니 자연한 이치가 없지 않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문을 짓고 한편으로는 강령하는 법을 짓고, 또 한편으로는 잊지 아니하는 글을 지으니 절차와 도법이 오직 21자일뿐이다.(吾亦幾至一歲, 修而度之則, 亦不無自然之理, 故一以作呪文, 一以作降靈之法, 一以作不忘之詞, 次第道法, 猶爲二十一字而已)¹⁹⁾

15) 『동경대전』, 한국학문헌연구소편, 『동학사상자료집 1』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51쪽.

16) 윤석산,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6), 144~147쪽.

17) 박영학, 『동학운동의 공시 구조』 (서울: 나남, 1990), 157~159쪽.

18) 윤석산, 앞의 책, 148쪽.

주문은 ‘至氣今至願爲大降, 待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의 21자이다. 원컨대 지극한 한울 기운이 지금 내리시어, 그 기운과 하나가 되면 조화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이를 늘 잊지 않고 체득하면 만사를 알게 된다는 뜻이다. 시천주는 글자 그대로의 뜻은 한울을 모신다는 것이지만 이는 한울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한울의 기운을 받는 것이다. 따로 밖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 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체득하면 만사를 꿰뚫어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만사지다.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곧 ‘정기(正氣)’이며, ‘수심(守心)’이다. 기운을 바로 하지 못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氣不正而心有移] 소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 수운은 우리 도는 무위이화(無爲而化)라고 했다. 그래서 억지로 가르치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수심정기(守心正氣)가 중요하다. 그러면 한울의 본성에 따르게 되고 그 속에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동학에서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다. 가르친다면 스스로 한울 성품에 따르게 하는, 즉 한울을 모시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용은 <도수사>에서도 말하고 있다.

남의 사장(師長) 되는 법은 내자불거(來者不拒) 아닐런가
가르치기 위주하니 그밖에 무엇이며
남의 제자 되는 법은 백년결의 하온 후에
공경히 받은 문자 호말인들 변할소나
출등한 제군자는 비비유지 한다해도
작지사(作之師) 작지제(作之弟)라 사문성덕(斯門聖德) 아닐런가
자고성현(自古聖賢) 문도들은 백가시서 외워내어
연원도통 지켜내어 공부자 어진 도덕
가장 더욱 밝혀내어 천추에 전해오니
그 아니 기쁠소나 내 역시 이 세상에
무극대도 닦아내어 오는 사람 효유(曉諭)해서
삼칠자 전해주니 무위이화 아닐런가²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학의 공부와 동학의 공부법의 비교다. 수운은 유학의 공부법에 대해서도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자신도 유학자의 가문에서 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공자나 유학경전에 대해 일정한 인정은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무극대도를 깨우쳐 무극대도를 깨우쳐 사람을 효유하고 있다 하였다. 그러나 기존 유학 공부는 백가시서를 외워내는 먼강(勉強) 공부이지만 동학은 삼칠자의 무위이화 공부라는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교육방법의 면에서 볼 때는 이 점이 중요하다. 유학도 초기 단계에서는 일상성을 강조

19) 천도교중앙총부, 앞의 책, 148쪽.

20) 위의 책, 94쪽.

한 면이 있고, 불교도 초기 단계에서는 일상적 실천을 중시하는 가르침이 명료했다. 그러나 유학이든 불교든 시간이 흐르면서 만권시서나 팔만대장경이 오히려 그 가르침의 본질을 덮어버리고 만다. 이런 단계에서는 지식이 권위화되어 진리의 보편성이 왜곡된다. 수운의 주문은 조선 말기의 이러한 상황에서 만권시서를 무효화하고도 도덕군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이 주문이다.

이 외에도 동학에서는 ‘심고(心告)’라는 일상적인 의례가 있다. 마음으로 한울님께 고한다는 의미의 심고는 다시 밥 먹을 때 고하는 식고(食告)와 집 밖을 나아갈 때 고하는 ‘출필고(出必告)’와 들어올 때 고하는 ‘입필고(入必告)’가 있다. 사실 이러한 ‘고’ 의식은 유가에서도 있었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의 ‘출필곡(出必告) 반필면(反必面)’이 그것인데, 우리 조선 사회에서도 사대부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일상적으로 지켜졌던 규범이다.²¹⁾ 그런데 조선조의 이 규범은 가정의례다. 그래서 <곡례>에서도 “夫爲人子者, 出必告, 反必面”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학에서는 사회 규범으로 의무적으로 부모나 웃어른에게 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의를 다하여 한울님께 고하는 것이다. 이 의식은 해월에게 와서는 좀 더 구체화되는데 <내수도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잘 때에 ‘잡니다’고 하고 일어날 때에 ‘일어납니다’고 하고 방아 찧으러 갈 때에 ‘방아 찧으러 갑니다’고 하고 정하게 다 찧은 후에 ‘벼 몇 말 찧었더니 쌀이 몇 말 몇 되 났습니다’고 하옵소서.

먹던 밥 새 밥에 섞지 말고 먹던 국 새 국에 섞지 말고 먹던 김치 새 김치에 섞지 말고 먹던 반찬 새 반찬에 섞지 말고 먹던 밥과 국과 김치와 반찬 등절은 따로 두었다가 시장하거든 먹되 고하지 말고 그저 ‘먹습니다’ 하옵소서.(…)

일가 집이나 남의 집이나 무슨 불 일이 있어 가거든 ‘무슨 불 일이 있어 갑니다’고 하고 불 일 보고 집에 올 때에 ‘무슨 불 일 보고 집에 갑니다’고 하고 일가나 남이나 무엇 이든지 주거든 ‘아무 것 받습니다’고 하옵소서.²²⁾

즉 단지 식고, 출고, 입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사를 한울님께 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해월의 생각이었다. 결국 이 심고는 일상의 의례라 할 수 있다. 한울을 모시는 ‘시천주’가 동학의 교육목표라면 그 시천주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가 심고이다.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울님께 마음으로 아뢰는 심고를 한다는 것은 시천주를 생활화한 것으로서 주문과 함께 동학의 교인지법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의례이다.

21) 유가의 ‘出必告’의 발음은 ‘출필곡’이다. 그런데 동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출필고’로 발음하고 있다.

22) 천도교중앙총부, 앞의 책, 175~176쪽.

2. 포덕의 관점에서 본 교인지법

동학에서의 포덕은 동학의 가르침을 전하는 행위로서 그 형식은 앞서 말한 의례와 같이 정형화된 것에서부터 일상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포덕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 용담유사나 동경대전 등의 글로써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문과 부적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포덕의 형식과 내용 가운데 여기서는 보다 교육적 형식이 강한 강도회(講道會)와 접(接)을 위주로 살펴본다.

강도회는 동학에 입도하여 입도식을 치르고 동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실시한 교육 모임이었다. 즉, 수운은 제자가 된 사람들과는 일상적으로 문답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었지만 때로는 강도회를 통해 도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은 『도원기서』에서 일부 파악할 수 있다.

선생이 “홍비가는 전에 반포한 것인데 누가 그것을 외울 수 있는가?”하면서 면강을 실시하였다. 차례로 면강을 한 뒤 (아무도 답을 못한 상황에서-필자주)강수가 혼자 좌중에서 나와 선생과 마주 앉아 (홍비가를)읽으며 그 뜻에 대해 물었다. 이에 선생이 먼저 각 구절의 뜻을 물으니 강수가 묵묵부답이었다. 선생이 웃으며 “그대는 참으로 ‘먹물’이구나.”라고 하자 강수 또한 도리어 선생에게 뜻을 물었다. 이에 선생이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가리켰다. 강수가 또한 (홍비가에 나오는)문장군의 뜻을 물으니 선생이 “그대의 마음이 통하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강수가 무궁지리에 대해 묻자 선생은 다시 “그 역시 마음이 통하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先生曰, 興比歌, 前有頒布矣, 或爲孰誦之耶, 各爲面講也, 茅次講之後姜洙獨出座中, 對先生而面讀問旨, 先生節節句句先爲問之, 洙默默不答, 先生笑戲曰, 子誠墨房之人也, 洙亦及爲問旨, 則先生指東指西也, 洙亦問蚊將軍之意, 先生曰, 君爲心通可知矣, 洙亦問無窮之理, 先生曰其亦心通知之耳)²³⁾

수운이 말한 홍비가는 계해년(1863년) 8월에 반포된 것인데 이 면강이 이루어진 것은 10월말로 추정된다. 이날 강도회의 텍스트는 뒷날 『용담유사』로 편찬된 <홍비가>이고, 강도회의 방식은 면강(面講)이었다. 면강은 과거 때 시관 앞에서 글을 외워 읽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전에 공부한 수업 내용을 암송한다는 배강(背講)과 같은 의미이다.²⁴⁾ 수운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예전에 공부한 방식인 배강의 방식으로 이미 배운 내용을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강수와 문답을 진행한 과정을 적고 있다. 강수의 물음에 수운은 즉답을 피하고 선문답과 비슷한 손가락으로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가리키는 ‘지동

23) 『도원기서』, 186쪽.

24) 박길수는 “천도교 수련의 역사와 문화”에서 이때의 면강은 글의 내용을 외워 읽는 배강과 구별되는 책을 보고서 읽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신인간』 통권656호, 포덕 146년 4월호,

(<http://www.chondogyo.or.kr/shiningan/oldsite/n2005/n04/n0406.htm>)

지서(指東指西)'와 마음이 한울과 통하면 자연히 알게 된다고 하였다. 텍스트의 내용을 외우게 하는 방법이 전통적 유교교육의 방법의 차용이라면, '지동지서'는 불교적 방법의 차용이라고 볼 수 있다.²⁵⁾ 그리고 한울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강조한 '심통'은 동학의 고유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심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주문과 수심정기, 성·경·신 등이다.

그런데 이 강도회와 함께 설명해야 할 것으로 '접(接)' 활동이 있다. '접'이란 개념은 동학 창도 이전부터 유생들의 공부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학업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개접'이라하고 그것을 마치는 것을 '파접'이라고 해왔다. 동학에서도 교단을 조직하면서 지역 기초 단위를 '접'이라고 하고 그 책임자를 접주라고 하였다. 뒷날 '포(包)'라는 지역 조직을 만들어 '접' 위에 두기도 하였다. '접'은 이런 조직의 명칭이기도 하였지만 교육의 과정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하여 강도의 시작을 개접, 마침을 파접이라 하였다. 『도원기서』에 보면, “그믐날이 되어 선생이 친히 각 처에 접주를 정하였다.”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역과 접주의 이름을 밝히었다.²⁶⁾ 이때가 1862년 12월이었고 장소는 흥해의 매곡동 송봉조의 집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7월에 파접 행사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선생께서 문서를 내서 파접의 날짜를 7월 23일로 정하였다. 그때 모인 사람이 4, 50명이 되었다.(先生卒爲發文罷接, 定于七月二十三日, 其時會集者, 僅爲四五十人也)²⁷⁾

즉 일정 기간 동안 '접'을 열어 특별 강도회를 열었으며, 개접과 파접에는 특별한 의식과 강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접'에 대해 뒷날 해월 최시형은 다음과 같은 종교적,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무인년, 1875년) 7월 25일 문서를 내어 유시현의 집에서 개접을 한다 하였다. 우리 도의 개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름인가? 선생 재세 때 파접의 이치가 있었던 까닭으로 이제 개접을 한다. 이는 문사들이 말하는 개접이 아니다. 천지의 이치는 음양이 서로 합하여 일월과 주야의 구분이 생기고, 십이시가 생긴 것이다. 원형이정의 수가 정해진 까닭으로 원은 봄이 되고, 형은 여름이, 이는 가을이, 정은 겨울이 되었다. 사시의 성쇠와 도수의 순환이 자방(子方)에서 열려[開] 축(丑)에 이르러 열림[闢]으로써 천지의 불변함[常]이 된다. (한울에)응함으로써 접하게 되고, 접함으로써 응하게 된다. 오행이 그 사이에서 나며, 사람이 삼재의 기운으로 화생한다. 그래서 개벽의 이치는 나날이 자와 축에서 만들어져 비롯되는 것이다. 선생은 한울에서 도를 받았다. 그래서 한울로부터 행하고 한울로부터 닦는다. 이러해서 한울로부터 열리고 한울로부터 접하며, 한울에서 운을 받고 한울로

25) 기존 사상의 방법과 관련한 수운의 교육방법은 단일하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는 유·불·선의 방법을 차용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들을 부정하기도 한다.

26) 『도원기서』, 179~180쪽.

27) 위의 책, 181~182쪽.

부터 명을 받으니 개접의 이치가 어찌 마땅하지 않으랴?(七月二十五日, 發文開接, 于劉時憲之家, 吾道之開接云者, 是何謂也, 先生時, 有罷接之理, 故來今謂開接, 是非文士之開接也, 天地之理, 陰陽相合, 有日月晝夜之分, 而又有十二之時, 以定元亨利貞之數, 元爲春, 亨爲夏, 利爲秋, 貞爲冬也, 四時之盛衰, 度數之循環者, 始自子方開, 而至於丑, 以開則是爲天地之常也, 而應以接, 接以應, 五行出於其間, 而人以化生於三才之氣, 故開闢之理日生子丑以始也, 先生道受於天, 故行自天修自天也, 是以開於天而接於天, 則受運於天受命於天, 開接之理, 是豈不宜哉²⁸⁾

즉 해월에게서 ‘접’은 단지 조직의 의미가 아니라 개벽 철학의 중심 개념이 된다. 그래서 유학자들이 말하는 개접의 의미가 아니라고 특별히 언급하였다. 동학의 ‘접’은 한울과 하나 되는 기제이며, 후천개벽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서의 ‘접’이다. 이렇게 본다면 ‘접’은 동학의 독특한 하나의 교화법, 교인지법이라 할 수 있다.

3. 수도의 관점에서 본 교인지법

동학은 ‘학(學)’이며, ‘도(道)’이다. <논학문>에서는 “도는 비록 천도이지만 학은 동학이다.(道雖天道, 學則東學)”라고 하였다. 수운이 동학이라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서학을 의식하여 이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표방한 것이다. 실체는 한울의 도, 즉 천도인 것이며, 천도를 닦아 깨우치는 것이 곧 수도인 것이다. 그런데 동학의 수도론, 더 나아가서 공부론은 유가의 그것과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마음을 강조하는 수도이며 공부, 즉 심학이라는 점이며, 성과 경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가의 수도론, 공부론이 성현을 이야기하고, 성현의 말씀인 경전에 크게 의존한다면 동학은 한울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는 것이 양자의 차이이다. 수운이 수도의 원리이자 방법으로 성·경·신을 강조하게 된 것은 그의 유학적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경신 득도와 포덕 과정에서의 체험과 관련이 깊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운이 득도 당시 한울로부터 영부와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치고[敎人], 사람을 구제하는[濟人]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 그 이유를 살펴보니(察其所然) 성과 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울님께 정성을 바치고 또 바친(誠之又誠) 사람은 효험이 있고, 도와 덕에 따르지 않는(不順道德) 사람은 효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²⁹⁾ 이러한 사정을 수운은 <권학가>에서는 “성경이자 지켜내어/ 한울님을 공경하면/ 자아시(自兒時) 있던 신병/ 물약자효(勿藥自效) 아닐런가”³⁰⁾라고 하였다. 또 <수덕문>에서도 “도가 이루어지고 덕이 바로 서는 것은 정성에 달렸고 사람에 달렸다.(道成德立, 在誠在人)”³¹⁾고 하면서

28) 위의 책, 265~266쪽.

29) 천도교중앙총부, 앞의 책, 3~4쪽.

30) 위의 책, 103쪽.

‘성’의 의미와 ‘성’과 ‘경’, ‘신’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무릇 이 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성이 된다. 믿을 신자를 풀어보면,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니 말 가운데는 옳음과 그름이 있다. 옳음을 취하고 그름을 물리쳐 그들 생각해 마음을 정하라. 정한 후에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신이라 한다. 이와 같이 닦아야 정성을 이룬다. 정성과 믿음이며, 그 법칙이 멀지 않다. 사람의 말로써 이루노니 먼저 믿고 뒤에 정성을 다하라. 내가 지금 분명히 깨우치노니 어찌 믿을 만한 말이 아니겠는가. 공경하고 정성들여 가르침을 어기지 말아라.(大抵此道, 心信爲誠, 以信爲幻, 人而言之, 言之其中, 曰可曰否, 取可退否, 再思心定, 定之後言, 不信曰信, 如斯修之, 乃成其誠, 誠與信兮, 其則不遠, 人言以成, 先信後誠, 吾今明諭, 豈非信言, 敬而誠之, 無違訓辭)³²⁾

이에 따르면 ‘성’의 바탕으로 ‘신’을 들고 있다. 신중히 생각하여 바른 것을 선택한 다음에는 이를 믿고 따르는 것이 성이 된다고 하였다. <좌잠(座箴)>에서는 “우리 도는 넓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다. 따로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 경, 신 세 자이니라.(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³³⁾라고 하였다. <탄도유심급(歎道儒心急)>에서 “(도를 이룸이)덕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에 있는 것이지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이 있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정성에 있는 것이지 억지로 구함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아니한 듯하나 그러한 것이요, 먼 것 같으나 멀지 아니하다.(在德不在於人, 在信不在於工, 在近不在於遠, 在誠不在於求, 不然而其然, 似遠而非遠)”³⁴⁾라 하였다. 앞서 <수덕문>에서는 도와 덕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성과 사람에게 달렸다고 하였고 여기서 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덕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뒤의 말이 도인들이 공부하는 데 급히 마음을 가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를 닦는데 정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계해년(1863년)에 지어 각 도인들에게 보내어 이 구절에 합당한 것을 지어보라 한 <팔절(八節)>에서도 성과 경을 이렇게 말하였다.

정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겠거든 내 마음을 잃지 않았나 헤아려라
공경이 이루어짐을 알지 못하겠거든 잠시라도 모양함을 늦추지 말라(<전팔절>)
정성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겠거든 나 스스로 나의 게으름을 알라
공경이 이루어짐을 알지 못하겠거든 내 마음을 자나깨나 두려워하라(<후팔절>)³⁵⁾

31) 위의 책, 24쪽.

32) 위의 책, 25쪽.

33) 위의 책, 37쪽.

34) 위의 책, 31쪽.

35) 위의 책, 32~33쪽.

성과 경, 신에 대해서는 동학의 경전 뿐 아니라 동학의 초기 역사를 기록한 『도원기서』에서도 “(계해년)4월 영덕 사람 강수가 도수(道修)의 절차를 물었다. 선생은 ‘다만 신·경·성의 석 자에 있을 뿐이다.(四月, 盈德人姜洙, 來問于道修之節次, 先生曰, 只在信敬誠三字云云)’라고 했다.”³⁶⁾라는 기록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도의 방법 가운데 으뜸가는 원리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운이 말한 성·경·신은 겉으로만 보면 유학의 덕목과 큰 차이가 없는 듯도 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동학의 성·경·신이 유학에서처럼 인간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울과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한울과의 관계에서 성이고, 경이고, 신이라는 것이다. 물론 사람도 하늘이니 결과적으로 인간관계에도 적용되지만 한울과의 관계가 일차적이다.

수운이 수도의 방법 원리로 강조한 것이 성·경·신과 더불어 또 하나 있는 데 바로 수심정기이다. <논학문>을 보면, 수심정기는 수운이 경신년 득도 시, 밖으로는 영에 접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는 말씀을 내리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를 기이하게 여긴 수운이 수심정기(守心正氣)하고 한울과 문답을 하였다고 하며, 또 한울이 수운에게 서학과의 동학과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말하면서 “우리 도는 무위이화라,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그 성품을 따를 수 있고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吾道, 無爲而化矣, 守其心正其氣, 率其性受其教, 化出於自然之中也)”³⁷⁾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유 포덕시에 제자들에게 “군자의 덕은 기가 바르고 마음도 안정되어 천지와 덕이 합치되고, 소인의 덕은 기가 바르지 못하고 마음도 흔들림이 있어 천지와 명이 어긋난다.(君子之德, 氣有正而心有定, 故與天地合其德, 小人之德, 氣不正而心有移, 故與天地違其命)”³⁸⁾고 하였으며, <수덕문>에서는 신유 포덕 당시의 상황을 말하면서 “인의예지는 옛 성인의 가르침이요 수심정기는 내가 다시 고쳐 만든 것이다.(仁義禮智, 先聖之所教, 守心正氣, 惟我之更定)”³⁹⁾라고 하였다. 수운이 수심정기를 자신이 고쳐 만들었다 한 것은 기존 유학의 그것과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그 차이가 동학의 독특성이다. 앞서 성·경·신이 한울과의 관계라고 하였듯이 수심정기 역시 단지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킨다는 의미, 기운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수심정기 역시 한울을 모시는, 한울과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동학의 공부론은 성·경·신과 수심정기를 통해 시천주를 하기만 하면 저절로 만사를 깨닫게 되는[萬事知] 의미에서 무위이화의 공부론이라 할 수 있다.

36) 『도원기서』, 181쪽.

37) 천도교중앙총부, 앞의 책, 10쪽.

38) 위의 책, 13~14쪽.

39) 위의 책, 22쪽.

IV. 수운의 교인지법의 의의

수운은 좌도난정, 흑세무민의 누명을 쓰고 득도 후 불과 4년 만에 처형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의 직접적인 포덕도 4년의 시간에 한정된다. 조선 왕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해 있었고, 그 조선 왕조가 국시로 삼은 유학 역시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수운은 기존 사회와 사상의 한계를 간파하고 새로운 사상을 제시하고 실천하였다. 유학과 조선 왕조의 한계는 바로 민중의 사상이 되지 못하고 민중의 조정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수운이 창도한 동학은 당대 유학이 감당할 수 없는 민중의 사상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운의 사상과 행동은 기득권을 지닌 입장에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1863년 7월부터 동학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9월에 이르러서는 유생들이 조직적으로 배척 통문을 만들어 각 서원에 띄우기 시작했다. 급기야 조정에서도 동학탄압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11월에 정운구를 선전관(宣傳官)으로 파견해 수운 체포에 들어간다. 12월 10일에 수운과 그 제자들을 체포하면서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기록에 동학의 포덕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새재에서 경주까지는 400여리가 되며 고을도 십 수 주군이였다. 동학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날마다 듣지 않은 날이 없었고, 경주를 둘러싼 여러 고을에서는 더욱 동학에 대한 이야기가 심하였다. 주막집 아낙네도 산골 초동도 주문을 외지 않는 이가 없었다. 위천주(爲天主) 또는 시천지(侍天地, 侍天主)라 하여 조금도 계면쩍게 여기지도 않으며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이렇게 된 내력을 추구하고 도를 전한 스승을 물어보니 모두가 최 선생이라며 혼자 깨달아 얻었고 집은 경주에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떠드는 것이 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신은 경주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저자거리나 절간 같은 곳에 드나들며 나무꾼이나 장사치들과 사귀어 보았다. 어떤 이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꺼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대답도 하기 전에 상세히 전해주기도 하였다. (...)학(學)에 이미 숙달되면 바로 사람을 가르친다. 대개 그 도를 처음 익힐 때에는 반드시 몸과 입을 먼저 깨끗이 하고 13자(초학 주문)를 받고 다음으로 8자(강령 주문)를 받고 다시 13자(본 주문)를 받는다 한다.(...)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돼지를 잡고 과일을 사서 깨끗하고 외딴 산속으로 들어가 제단을 차려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강령 주문을 외워 신령을 내리게 하는데 이번에 괴수 최가의 집에서 금년에도 여러 차례 모여서 강론을 하였다 한다.(...)만일 대중들이 모여 강도(講道)하는 자리를 갖게 되면 최가는 강령주문을 읽어 신령이 내리게 한 후 나무칼을 손에 쥐고 처음에는 끌어앉았다가 일어나 나중에는 칼로 춤을 추며 한 길도 넘게 공중으로 떠올라 한참 만에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복술(수운)과 서로 인사하고 공손한 말로 학(學)하기를 원하였다. 복술은 조금도 꺼리거나 숨기는 것이 없이 혼연히 허락하였다. 말하기를 낮에는 번거로워 쫓이 없으니 먼저 점심 저녁을 드시고 유숙하면서 오늘 밤에 가르침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자리를 두루 살펴보니 소위 제자들이 두 칸 방에 가득하며 뒤섞여 설명하고

주문 읽는 자가 있었다. 처음 와서 질하고 학을 청하는 자도 있었다. 거의 30, 40명이나 되었으며 어떤 이는 소매에서 건시 세 꼬지를 꺼내고 어떤 이는 요대를 풀어 전문 3~5냥을 꺼내 예물이라며 전해주기도 하였다. 그중 한 제자는 학을 청하면서 이르기를 학할 때 주문을 소리 내어 읽지 않고 속으로 읽으면 어떨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복술이 말하기를 만약 마음으로만 읽고 입으로 읽지 않으려면 학하지 않는 것만 같지 않다고 하였다. 그 제자가 남이 알까 꺼려서 소리 내어 읽을 수 없다고 하자 복술은 그렇다면 학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제자는 그 선약을 어찌 써야 하느냐고 묻자 복술은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약을 먹으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제자는 다시는 한마디도 못하였다. 복술이 자리 앞에 쌓아놓은 육언구문(六言句文)은 마치 과거 때의 부(賦)와 같은 것으로 수십 장이요, 한 종이에 십여 구가 되었다. 붓을 들어 꼼꼼히 살펴서 이르기를 무릇 나의 학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한울님 밖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 하며 여러 서책은 다만 동학을 높이 숭상할 줄 알게 하는 것이었다. 어찌 동학 이외에 다른 학이 없겠는가 라며 매우 본뜻을 잃은 것이니 가합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그 속에서 한 권을 집어내면서 이르기를 이 서책은 동학의 본지에 매우 타당하여 일등에 뽑아놓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 서책을 왼쪽에 앉아 있는 제자에게 내보이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내가 지은 것으로 이렇게 지은 연후에야 가히 본 뜻에 타당하다 하리라고 하였다. 벽상에도 또한 써 붙인 필적이 많은데 어떤 것은 범서와 같은 자획이 있었다. 물론 서책과 걸어 놓은 필적을 살펴보고 그 글 뜻을 헤아려 보니 무엇을 가리킨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나 오로지 그들의 학을 말한 것 같았다. 다시 청하여 보기를 점심 저녁을 드시라 권하면서 자고 가라하시며 붙잡는 뜻은 감사하지만 들으니 이 학을 학하려면 먼저 몸을 청결히 해야 한데 우리는 여러 날 오느라 피곤하여 깨끗하지 못한 것이 송구하고 잠자리 또한 아직 정하지 못했으니 몸을 깨끗이 하고 난 모레쯤에 학을 청하겠다고 하였다. 복술은 이르기를 그러하면 읍으로 가서 남문 밖 최지원과 이내점을 찾아가 두 사람에게 내 말을 전하면 잠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평안히 있게 될 것이다. 최는 나의 수제자이고 이도 또한 친숙한 사이라 내 뜻을 알 것이니 차례로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⁴⁰⁾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선전관 정운구가 수운을 체포하기 위해 내려가는 새재에서 경주까지 400 여리의 십 수 주군을 가는 사이 하루라도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동학은 1863년 당시 영남 지방 민중들의 최대의 사회적 관심사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동학을 믿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는 주막집 아낙네, 산골 초동, 나무꾼, 장사치 등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주 계층은 민중들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르침의 방법, 즉 교인지법으로는 우리가 본문에서 논의한 21자 주문이 위주였던 것도 알 수 있으며, 초학자에게는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입문식을 치르게 하고, 입문식을 치른 자들에게는 강도회, 강론회 등의 형식을 통하여 경전 공부를 하게하며, 이때 검무와 같은 각종 의례

40) 『승정원일기』 계해12월 20일조 선전관 정운구 서계, 표영삼, 앞의 책, 291~299쪽에서 재인용

도 행해졌다는 것을 정부 측 문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동학은 동양의 전통 학문 방법인 심학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그것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켰다. 성리학이나 불학 등 대부분의 동양학이 그러하듯 동학 역시 심학(心學)이요 도학(道學)이다. <교훈가>나 <축문>에서도 “심학이라 하였으니 불망기의 하였으라”, “도는 심학이다(道有心學)”라고 하여 심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경·신과 수심정기는 동학의 이러한 심학적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만권시서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만 열심히 외우면 된다는 것이다. 일찍이 원효가 6자 염불로 신라 민중들을 교화하였듯이 수운은 동학의 핵심을 압축해놓은 13자 주문으로 조선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코메니우스(J. A. Comenius, 1592~1670)가 『대교수학(Didactika Magna)』의 첫머리에서 말했듯이 교육방법의 요체는 쉽고, 빠르게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⁴¹⁾ 수운의 공부는 당시 유학자들의 과거 공부처럼 10년 공부가 아니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지배층이나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인 것이다. 다만 정성스런 마음과 공경스런 마음, 참으로 믿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저절로 되는 무위이화의 공부인 것이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한울과 통할 수 있고, 그러면 세상만사가 다 저절로 이루어지며, 세상만사의 원리가 다 트인다는 것이 동학이다. 이것이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의 교육적 의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창시자들이 내세운 교육방법은 이론적으로 복잡하거나 특별한 매체를 동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박하고 단순한 면이 있다. 그들의 교육방법은 어느 특정인,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방법은 특별한 상황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실천이 가능한 것이다.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수운이 득도 후 내세운 교인지법 역시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창시자들의 교육방법과 다르지 않다. 특히 수운이 강조한 무위이화의 방법은 독특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새삼 흥미해볼 점이 있다. 즉 수운의 무위이화는 도가에서 채용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수심정기와 성·경·신과 같은 학습자의 수도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의 도가적 무위이화와는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종래의 교육방법처럼 학습자의 머리에 억지로 무엇을 넣어주는 면강적(勉強的) 방법도 아니다. 그것은 한울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만사를 깨우쳐 가고 알아가는, 즉 한울과 하나되는 ‘동학적 자연주의’의 교육방법이자 교육원리라 할 수 있다.

41) 코메니우스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보편적 기술”이라는 《대교수학》에서 “빠르게, 즐겁게, 철저하게”라는 세 가지 방법적 원리를 말한 바 있다.

참고문헌

- 고병철, 「천도교 의례의 변용과 특성: 시일식을 중심으로」,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 연구』 24, 한국종교학회, 2007
- 김용옥, 『도올심득 동경대전 1』, 서울: 통나무, 2004
- 박길수, 「천도교 수련의 역사와 문화」, 『신인간』 656, 포덕146.4 (<http://www.chondogyo.or.kr/shiningan/oldsite/n2005/n04/n0406.htm> 참조)
- 박영학, 『동학운동의 공시 구조』, 서울: 나남, 1990
- 안경식, 「동학의 민중교육운동과 사상」, 성남: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오지영, 『동학사』, 한국학문헌연구소편, 『동학사상자료집 2』,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 윤석산, 『동학교조 수운 최제우』,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06
- 이원호 외, 『한국의 전통교육사상』,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정혜정, 『동학·천도교의 교육사상과 실천』, 서울: 해안, 2001
-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경전』, 서울: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포덕122
- 『천도교창건사』, 한국학문헌연구소편, 『동학사상자료집 2』,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 한국학문헌연구소편, 『동학사상자료집 1』,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 최광만, 「초기 동학교단의 수련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회, 교육사학연구1, 서울: 교육사학회, 1988
- 표영삼, 『동학 1』, 서울: 통나무, 2004
-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편, 『한국교육사상가평전 1』, 서울: 교학연구사, 1987

원고접수: 2007년 10월 25일 1차심사: 11월 8일 게재승인일: 12월 18일

연구자 소개: 안경식

① 전공: 교육사(국립대만사범대 철학박사) / 소속: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사상, 고대교육사상, 아동교육사상

③ 주요논저: 『한국전통아동교육사상』, 『구비설화에 나타난 한국전통교육』,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과 사상』

④ E-mail: sinosa@pusan.ac.kr

Abstract

The Teaching Method of Su-un, Donghak Originator

An, Gyeong-Sik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Regardless of East and West, religion plays an important educational role in traditional societies. Religious thought was regarded as educational thought. The originator, or leader, of a religion is regarded as being the educationally ideal person. They took the role of “teacher of mankind”. Their teaching is a resource and model for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Su-un's(水雲) teaching method and its educational meaning.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chapters. In chapter II, I will examine Su-un's study career in order to understand his teaching method. His study career is divided into four periods. First, the period when he studied Confucius from when he was 6 or 7 years old till three years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in 1842. Second, the period of when he studied the mysteries and martial arts for two years. Third, the period when he became a merchant and conducted while gaining worldly knowledge. Forth, the period when he returned back home and continued his spiritual discipline. In chapter III, I will study Su-un's teaching method from three points of view: ritual ceremony, spiritual discipline, and missionary work. From the ritual ceremony points of view, I will examine the entrance ceremony, mission ceremony and the simgo(心告) magic formula. For spiritual discipline, I will examine susim jeonggi(守心正氣) and sung-gyeong-sin(誠敬信). From his missionary work, I will examine his lecture meetings and jeop(接). In the final chapter, I will try to elucidat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Su-un's teaching method from the viewpoint of the 21st century.

Key words : Teaching method of Su-un(水雲), Donghak(Eastern Learning, 東學), Choe Je-u(崔濟愚)